

## 소리 사이

반쯤 열린 방

2016.11.11-12.10

인사미술공간

글 | 옥다애 기자

하나의 방이 있다. 드나들 수 있는 문 대신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만이 두 개 설치된 방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뚫려 있는 두 개의 창문으로 인해 그 방은 닫혀있다고 말하기도, 그렇다고 개방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반쯤 열린 방'이 된다. 인사미술공간 2층 전시장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이 방에서는 간격을 달리하여 배치되어 있는 몇 대의 조명과 스피커를 통해 소리와 빛이 새어나 온다. 풀과 풀 속의 풀벌레 소리, 건조하고 무거운 바람 소리, 이름도 알지 못할 온갖 새소리, 어쩐지 익숙하게 들리는 빗소리, 무언가 끊임없이 부서지는 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각각 다른 길이의 시간 동안 들려오는데, 그 소리들은 아주 멀리서 가만가만 들려오는 것 같다가도 때때로 창문을 흔들 기세로 달려든다. 누르스름한 색의 빛은 들려오는 소리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 방을 서서히 물들이거나 소리마저 모두 사라진 빈 방에 가득 채워지기도 한다. 빛과 소리가 맞물리거나 어긋나는 이 공간은 벽을 경계로 단일한 세계를 형성한다.

34분을 주기로 반복되는 방의 변화는 한 장의 A4용지에 몇 자의 텍스트로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방 안의 시간과 공간은 탈각되고 활자화를 거

쳐 평평한 종이에 인쇄되었다.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사라지는지, 혹은 방의 상태에 대한 진술로 기록되어 존재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신은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라거나 "그것은 당신의 어떤 기억을 올린다", "당신은 창문을 열어둔 채 방안을 어슬렁거리다"와 같은 문장은 관람객의 정서나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소리로 가득한 방과 그 방에서 일어났던/일어날 일들이 기술되어 있는 한 장의 텍스트는 창문이라는 벽을 사이에 두고 공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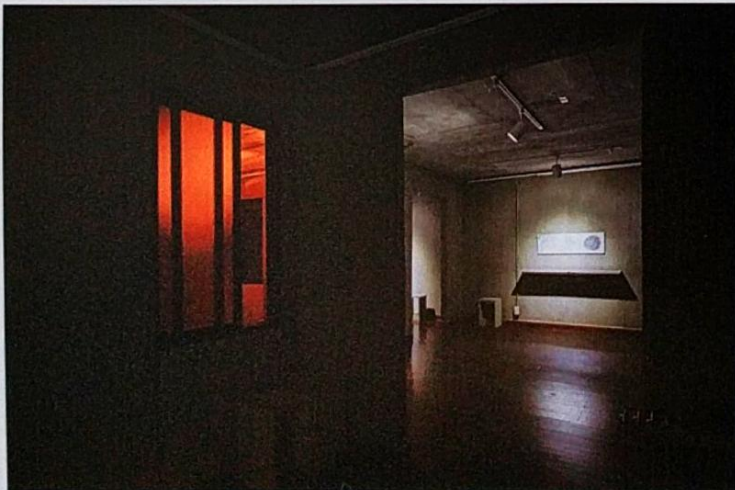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작가가 머무는 곳의 소리를 웹 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송출했던 2015-2016년의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젝트(정확한 프로젝트 이름은 'Weather report'이다)'를 뒤쫓는 것 같기도 하다. 전시장 한편에 비치된 소책자를 통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일주일에 한 번 씩 주로 제주도에서, 가끔은 서울과 런던에서 주변의 소리를 스트리밍 하고 소리가 변화한 그 시각과 짝막한 메모를 기록한 작가의 로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작가의 좌표에 따라 달라지는 작가의 '지금' 소리는 웹을 통해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었을 어딘가의 청취자에게로까지 새어나갔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에서도 어딘가에서 존재했던 소리가 (가상의 웹 대신) 전시장 안에 채워졌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소리는 생경한 곳에 도착하여 그 장소와 듣는 사람에 따라 매번 다르게 공간을 채우고, 관람자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를 기록한 작가의 로그처럼 저마다의 빈 로그를 채워나갈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어떤 기

억을 올린다"와 같은 문장은 듣는 감각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자도 소리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이로 인해 촉발된 내면의 심상을 감지하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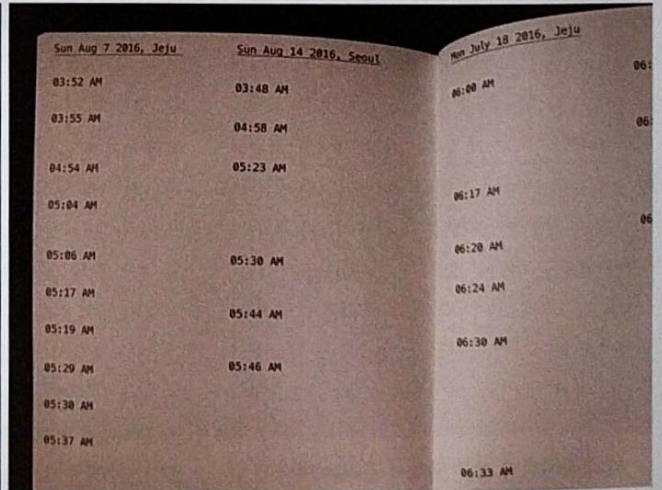
그러나 이 전시는 작가가 꾸준히 진행해온 프로젝트와는 분명히 다른 층위를 지닌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장의 '반쯤 열린 방'에 있다. 이 방은 인위적인, 임의적인 벽으로 인해 안과 밖이라는 일정한 구분을 가지는 방이다. 하지만 방 안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명확한 구분선 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빛과 소리만으로 촉발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그 경계는 모호하게 와해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작가는 2층 전시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그 공간을 '헛벗은 바깥'이라 칭하며 다시 한번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뒤틀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여기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송신했던 것이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젝트'였다면 이번 전시는 이질적인 두 공간을 바로 접합시킴으로써 그 물리적 거리를 좁힌다.

텍스트를 읽는 관람자와 빛과 소리가 가득한 방 사이에는 반쯤 열린 경계가 있다. 프로젝트와 전시라는 서로 다른 형식을 경유하여 다시 한 번 같은 질문 앞에 마주한다. 우리는 경계를 건너뛰어 가닿을 수 있는가?

\*《반쯤 열린 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과정을 이수한 김민주, 김지연, 박호은 작가가 참여한 그룹전이다. 인사미술공간의 지하 1층에는 박호은 작가가, 1층에는 김민주 작가가 2층에는 김지연 작가가 각각의 전시 공간을 꾸렸다.



김지연, 《반쯤 열린 방》 전시 전경, 이미지 제공 : 인사미술공간



김지연,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젝트 책자 ©옥다애